

## 어등산 조정 거부 땀 다시 원점... 묘책 있나

광주시, 관광단지 조성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 오늘 최종 확정  
승소 불투명 ... 패소하면 시간·비용 버리고 갈등만 양산 우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 법원 조정안에 대한 최종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기존 개발업체인 (주) 어등산리조트가 법원에 낸 투자비 반환 소송의 강제조정과 관련한 입장을 14일 오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14일은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이날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된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일 (주)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비 반환 소송에서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다.

조정안은 시에서 제시한 것으로, 399억원을 제시한 어등산리조트 측이 합의 의사를 보이면서 조정을 눈앞에 뒀다. 광주시도 “최대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9월까지 새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에 들어가 연내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해석됐다.

특히 시는 민선 6기 들어 제2 순환도로 운영비 보장, 롯데마트 불법 재입대 문제를 잇따라 해결하면서 업체와 분쟁중인 지역 3대 경제현안 중 마지막 남은 ‘어등산 소송’까지 해결해 후반기 시장 운영에 가속도를 붙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시의원들이 유월치 등 사업 핵심인 공익시설 개발은 뒤로 한 채 골프장만 조성한 업체에 투자비

를 돌려주는 것은 특혜라는 논리를 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시가 법원의 조정을 거부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도 크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논란의 쟁점인 ‘특혜 시비’와 관련해서는 어등산리조트가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돼 순수한 자의에 의한 사업 포기라 아니라는 시선도 있다.

사업 추진을 전제로 어등산리조트가 기부채납한 땅값도 몇 년간 크게 올라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로서는 반환금 229억원을 돌려주고 남는 액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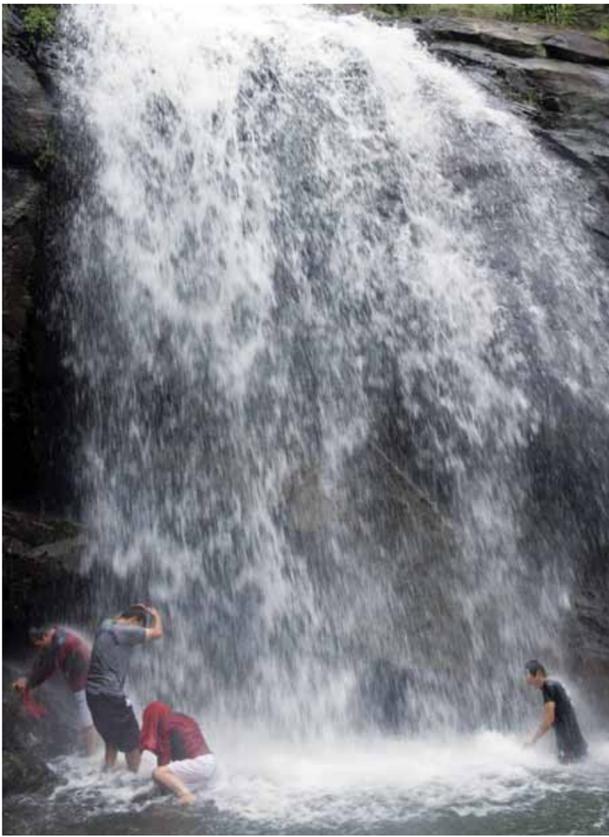
하지만, 조정이 성사되지 않고 판결로 간다면 확정 판결이 나올때까지 그동안 10년 넘게 끌어온 사업은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의회에서는 어등산 인근 운수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을 이유로 어등산 조기 착공을 촉구하고 나서 향후 지역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또한, 시의 승소를 확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만일 패소한다면 시는 시간, 비용을 버리면서 갈등만 양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향후 몇 년 뒤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사업성 자체가 나올지 가 문제다”면서 “부동산 개발 메리트가 떨어질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등 사업 추진이 더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수락폭포 시원합니다” 구례의 낮 최고기온이 32.2도를 기록한 13일 구례군 산동면 수락폭포를 찾은 피서객들이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알립니다

### 제2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화순~광주 동구)

8월15일 광복절 출발

광주일보사는 오는 8월15일 화순과 광주를 이어주는 너릿재 옛길에서 한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이색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너릿재 옛길을 널리 알리고 광복절의 의미를 기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대회 코스인 너릿재 옛길은 산림청의 ‘아름다운 숲 10선’에 선정될 만큼 곳곳에 편백나무·소나무 등 천연수종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는 명품 숲길입니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가 된 옛 광주일보 3·1마라톤 코스(옛 전남도청~화순군청)의 일부 구간을 복원한 것입니다.

흑서기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의 마라톤 가족들에게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동호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8월 15일(월) 08 : 00 출발
- 장소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 종목 : 풀코스, 25km, 8.5km
- 접수 : http://marathonworld.kr
- 문의 : (061) 375-1288
- 주최 :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마라톤세상
- 주관 : 마라톤세상
- 후원 : 화순군청·광주광역시동구청

光州日報社

### 사드, 경북 성주 배치 발표... 내년 말 실전 운용

한미 군 당국은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없는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했고 이를 한미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드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배치된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200km)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과 군산, 육·해·공군본부 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 까지 북한 미사일을 쫓아낼 수 있게 된다. 또 후방의 부산을 포함한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된다.

한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드 기지를 건설,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 연합뉴스

## “안보가 국익...사드 배치 돌이킬 수 없어”

야당 대표에 듣는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위원회 대표는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용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인터뷰 전문 5면〉

김 비대위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의 ‘야당 대표에게 듣는다’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며 안보 측면을 고려한다면 야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실효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사드 배치 재검토 및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물론 야권의 반대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어 야권의 대선 주자가 복수인 3자 구도에서도 야권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대선 전 야권 통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권의 정권 창출 필요충분조건에

대해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내년 대선에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연합정부론과 관련, 김 대표는 “양 당의 대선 주자 가운데 누가 양보하겠느냐”며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야권의 정권창출 가능성에 대해 “70%는 넘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대선 주자로서의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대해서는 이회창 전 신한국당 대선 주자를 언급하며 “치열한 경선이 필요하다”



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용용성이 부족하고 새정치의 실체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했으며,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실패하고 양극화를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과 함께 내각제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을 선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생각 - 모기 ▶3면

발암물질 관리 허술한 실태 ▶6면

파독 간호사-광주 안덕레씨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청사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